



광주 겨울하늘 수놓은 비행구름

겨울비가 그친 9일 비행운 궤적이 광주도심하늘을 수놓았다. 비행운은 비행기 엔진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상공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 순간적으로 작은 알갱이가 생기는 현상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벤처기업 육성 길이 보인다

전남, 조달청 소평몰 '벤처나라' 진출 기업 발굴 나서 두 달 새 1→23곳 늘어
 광주는 1개 뿐 ... "지자체 적극행정 펼치면 창업·벤처기업 날개" 모범 사례로

조달청 소평몰 '벤처나라'에 진출할 광주·전남 벤처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단 1곳에 불과했던 전남지역 기업은 두 달 사이에 무려 23곳이 발굴돼 '벤처나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는 '벤처나라'에 광주·전남 기업이 안 보인다'는 지적(광주일보 2019년 10월 10일자 14면)에 따라 전남도가 적극 행정을 펼쳐 얻은 성과다. 지자체가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지역 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다는 교훈이 되는 사례로 평가된다. 9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조달청 소평몰 '벤처나라'에 등록할 전남지역 창업기업인 고흥(주)대공이브 이자동차, 나주 남부산전(주) 등 23곳을 발굴했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재해 거래를 하게 된다. '벤처나라'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들의 우수 상품이 공공조달시장(나라장터)에 진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창업·벤처기업 전용 소평몰이다. 벤처나라는 지역 상품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추천 상품 목록을 게시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이 추천 수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벤처나라'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천한 기업은 각각 1개 뿐이고, 최근 발굴한 광주 1개, 전남 11개가 추가 등록

될 예정이다. 전남도가 발굴한 나머지 12개 기업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달 새 지역기업 진출이 크게 늘었지만 경남도 335개, 경기도 268개 추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전남도의 두 달 간의 벤처기업 발굴 과정은 고무적이다. 전남도는 광주지방조달청과 회의를 갖고 벤처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전남도 3명을 꾸려 경제인단체와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해 벤처나라 추천기업 목록을 받아왔다. 기존에는 22개 시·군

제 담당 부서에 추천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벤처기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탓에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광주 벤처기업협회,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사)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등을 방문해 추천목록을 받은 결과, 두 달 만에 벤처나라에 등록할 23개 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벤처나라'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지난 8일 조달청장으로부터 '2019년 조달이용 우수고개' 표창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벤처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넓히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군 실적을 확인하고 부단체장 회의 때 벤처나라를 홍보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해 품목에 농수산 가공식품도 포함토록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양산동(유)강정의 친환경 세탁비누 4개 물품을 추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제인단체와 5개 자치구 등에 배부 공문을 보내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체가 직접 신청을 해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업체가 3년 간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총 44억7800만원으로, 전체 426억원의 10.4%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지역화폐 2534억원 ... 설 명절 '현금깡' 비상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들어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화폐'의 활용을 약속,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나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나주사랑 상품권 깡' 사건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깡'을 차단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의 양적 확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혈세(血稅) 낭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

군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년도(1108억원)보다 늘어난 2534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 상당수의 발행 시스템은 '상품권 깡' 사례를 막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에서는 지난해 판매 촉진을 위해 5% 저렴하게 판매하는 혜택을 약속, 역대 상품권을 사들인 뒤 허위 가맹점을 통해 정상가로 현금화해 손쉽게 8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벌여들인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외법인의 상품권 구매 한도가 없는 점을 악용, 지인 명의의 법인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5% 할인가로 사들인 뒤 이름 뿐인 유령 가맹점 5곳을 만들어 29차례로 나눠 금융기관에서 환전, 차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한도가 없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쉽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상당수 자치단체들도 허술한 판매 구조 때문에 언젠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의 경우 관내관의 법인에게는 상

할인을 악용 방지 시스템 없이 양적확대 급급 혈세 낭비 우려 품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할인율을 6%로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최대 7일 이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쉽게 '깡'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목포도 관외 법인에 대해서는 반기당 1000만원으로 구매 한도를 제한해놓긴 했지만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3일 안에 가맹점 등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페이퍼가맹점'에서 10%까지 할인을 적용을 받아 환전하는 등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함평, 영암도 직접 영업장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페이퍼가맹점' 여부

를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명절 5~7%의 할인율을 감안, 언젠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 시각이다. 지역 경제계는 관외법인의 경우 구매를 전면 제한하거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조로로 명문화하고 '페이퍼가맹점'을 막기 위해 담당 직원이 직접 영업장 유무를 확인한 뒤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액에 견줘 환전율이 높은 매장,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상품권 깡' 사건 이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나주시의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관 전 대법원장 아들 윤준 대법관 후보 추천



윤준 지법원장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59·사법연수원 16기·해남) 수원지방법원장과 노태약(58·16기·경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58·18기·대전)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업(56·18기·부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중 해남 출신인 윤준 후보는 대법관을 거친 윤관(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해남·광주) 제12대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윤준 후보가 대법관에 이름을 올린다면, 2대에 걸쳐 대법관을 배출하는 영예를 안게 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윤 지법원장 등 4명을 선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는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천거된 55명 중 심사동의를 한 후보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 정도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다. 대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퇴임하는 '5월의 사제' 남재희 신부 ▶2면

가족이 된 반려동물 이야기 ▶18면

광주FC 수비수 국대출신 김창수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MORE PACIFIC CORPORATION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날 선물세트 ●

● 3만원 이상

프레시팝 베이직 선물세트
32,900원

러 동백&박하 에디션
34,900원

저자극 디어 헤어&바디세트
36,900원

러 자양윤요 기프트
39,900원

사랑행복두배 기프트
49,900원

정성가득 기프트
55,900원

● 3만원 이하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AP 아로마퍼퓸 세트
29,900원

AP 로즈에디션 세트
28,900원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